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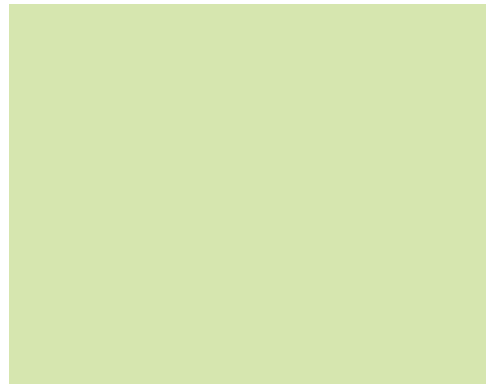
2015 0304

Vol. 110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스페셜기획_ 인하대병원에서 봄이 시작된다! | 유방·갑상선외과센터/산부인과/척추센터/통증센터/뇌신경센터/혈관외과 Health touch_ 유방재건술





16



24



32

인하대병원

Ma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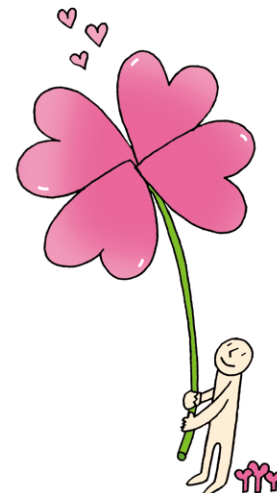
Apr 2015 Vol.110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사랑할게요

내내 아들 손가락이었던 나를 지켜내느라 한시도 편할 날이 없던 나의 가족들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느라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데 익숙했던 나의 지난날.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그다음엔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나의 그늘에 가려졌던 나의 동생,
 나를 세상에 던져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되려 사내는 그래야 한다는 듯
 씩씩하셨으나 밤이면 남몰래 울던 나의 아버지,
 쓰다듬다가 닳아 없어질까 내내 나를 아끼워하셨던 나의 어머니,
 다음엔 내가 더 많이 당신들을 사랑할게요.
 나를 어루만지던 손길로, 나를 인내하셨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었던 넉넉함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요.



신명진 | 로크미디어 | '지금 행복하세요?' 중에서

건강 한 걸음

- 04 **스페셜 기획** **인하대병원에서 봄이 시작된다!**
- 06 **그녀들의 아름답고 은밀한 건강, 여성전문센터**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산부인과
- 10 **봄 햇살 아래 당당하고 빛나게 걸어보자!**
척추센터 / 통증센터
- 14 **어제와 다른 봄빛으로 물들게 한다!**
뇌신경센터 / 혈관외과
- 18 **Health touch** 유방재건술로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

사랑 두 걸음

- 20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3 - 송학동
- 24 **Special people** 아이드림 나눔, 지구촌 아빠 배우 이광기
- 26 **모르면 지는거다** DIY에 빠지는 이유

나눔 세 걸음

- 28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② - 개인정보보호
- 30 **INHA Focus** 인하사랑 공모전 수상작
- 32 **인하심포**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의 나눔 문화 실천
- 34 **톡톡 악물상담** 생리통
- 35 **병원 돋보기** 금연치료 지원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인론**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39 **Info desk** 건강교실 + 전시회 및 공연 + 파랑새 소식



표지_인하대병원에서 봄이 시작된다! | 유방·갑상선외과센터/산부인과/척추센터/통증센터/뇌신경센터/혈관외과 의료진

인하대병원보 2015년 03·04월호(통권 제110호) 등록번호 인천마이031 발행일 2015년 3월 3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 홍보팀 디자인 테크포스
 인쇄 금강프린텍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032)890-2603 팩스(032)890-26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맞이하려고 또 다짐한다.
어떤 '시작' 이든 늘 '설렘과 떨림'이 반씩 공존한다.
그래서 더 툄다리를 두드리고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인하대병원과 인천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 시작한 인연,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소중한 '나의 환자' 를 온전히 볼 줄 아는 냉철한 눈과 간절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제 20년 전 조심스럽게 첫발을 댄 그때의 '초심'으로 인하대병원은 신관증축과 함께 또 한 번의 시작을 알린다.
의사의 첫발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시작된다. 그때만큼 순수한 초심이 있을까?
우리 인하대병원 전 직원은 '절대 가치와 꿈을 담은 초심'을 2015년 봄날, 가슴에 담는다.

조금 더디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함께 발을 맞춘다.
환자의 손을 잡고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다짐해본다.
그리고 '건강한 행복'을 전하겠다는 6개의 진료과 & 전문센터를 소개한다

에디터 _ 이정희 포토그래퍼 _ 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절대 가치와 꿈을 담은 초심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아름답고 은밀한 건강, 여성전문센터

- 01_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02_ 산부인과

봄 햇살 아래 당당하고 빛나게 걸어보자!

- 03_ 척추센터
- 04_ 통증센터

어제와 다른 봄빛으로 물들게 한다!

- 05_ 뇌신경센터
- 06_ 혈관외과



여성을 괴롭히는 고단한 질병을 보듬다!

Breast & Thyroid Surgery Center

1

조기 발견과 치료, 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발병을 막기란 쉽지 않은 유방암!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40대 이후 중년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갑상선암!
잘 먹고 잘살아지면서 생긴 '서구형 질병'이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녀들의 동반자,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가 있다.

아름다움과 건강, 그러나 건강이 치료의 우선순위는 '유방·갑상선외과센터'의 김세중 센터장

유방·갑상선외과센터 Breast & Thyroid Surgery Center



가슴에는 따뜻한 위로가 유방은 보존이 최우선!!

20대 ~ 60대 여성 모두 유방암 안전지대 NO!

미국의 유방암 발생 패턴을 보면 60세 이후에서 많이 발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살아진 세대인 40대 중반~50대가 피크인데 점차 발병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발병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 유방암 발병 확률은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위험률이 높아지는 점을 생각해보면 '빨라진 초경, 늦어진 폐경 그리고 여러 이유로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호르몬제,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활 패턴을 보면 20~60대 여성 모두 유방암의 안전지대는 없는 듯하다.

정기검진, 치밀 유방은 초음파 검사 추천

그래도 최선의 예방방법은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이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의 김세중 교수는 유방암 정기검진을 강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 유방이 많아서 X-레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할 것을 권한다.

여성의 독보적인 아름다움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것은 환자나 의과 의사나 모두 아픈 일이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의 최우선 치료목표는 아름다운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며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학제 진료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짜는데 머리를 맞댄다.

당일 검사와 진단 원스톱 진행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2위이지만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생존 예후가 좋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는 당일 검사와 진단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움직인다. 다만 조직검사의 결과는 2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재검진 소견이 있어서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 보니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확진의 스피드는 중요하다.

유방을 살린다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유방암은 병변의 크기보다 위치에 따라 불리한 경우가 많다. 또 크기가 작아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발성인 경우는 유방 보존이 힘들고 크기가 큰 경우 항



센터 내 맘모톰 장비와 시술 장면

암치료로 병변을 작게 해서 제거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유두를 살리는 유방 보존에 집중한다.

갑상선에 누구나 혹 하나쯤?

15집으로 돌아온 이문세 갑상선 암 재발, 만만하지 않다!

가수 '이문세'는 최근 방송출연에서 8년 전 갑상선 암 제거 수술을 처음 했는데 얼마 전 또 재발되어 지난해 7월 또 한 차례 치료했다고 밝혔다. 성대 가까이 있는 암 일부는 남겨둔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생명을 선택하여 1분이라도 더 노래하고 싶다는 가수로서의 사명감으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기나 젊은 남자의 경

이슈 토크! 김세중 교수

예방 경각심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유방암 예방위해 유방 절제!

2013년에 양쪽 유방을 잘라 낸 '안젤리나 졸리'!
유전성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최선이였을까?
졸리와 같은 유전자 검사를 나도 받아야 하는 걸까?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유방절제술은 '환자의 선택'으로 의학적 예방법 중 하나이다. 유방암 발생 고위험군의 예방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 정기검사를 자주 받는 것, 먹는 약(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졸리가 선택한 예방적 유방절제술 등이다. 타목시펜 복용은 자궁내막암 위험 등이 있고 유방은 100%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예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자주 정기검진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유방암은 유전성 암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안젤리나 졸리에게 나타났다는 BRCA 유전자란 BRCA란 'Breast Cancer'의 약자로 유방암·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말한다. 졸리에게서 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졸리의 어머니, 이모, 할머니, 3대에서 유방암, 난소암이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변이가 있다면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은 50%이므로 자녀 검사도 한다.

BRCA 유전자 변이 검사

● 혈액(20cc)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족 중 유방암, 난소암 발병이 있거나 40세 이전에 유방암 걸린 경우, 그리고 양쪽 유방에 발병한 등의 경우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이기도 하다.

갑상선 호르몬 유희유 역할, 임신 중 태아 뇌 발달 관여

갑상선 호르몬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해주고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에 관여하는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다.

갑상선암의 진단

갑상선 초음파로 갑상선암의 크기와 위치를 먼저 확인하며 가느다란 주사기 바늘로 결절의 세포를 뽑아 관찰하는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로 갑상선암 진단을 확진한다. 그 외에 혈액검사와 전이 상태를 보기 위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진행하기도 한다.

● 문의 : 유방·갑상선외과 센터 ☎ 032-890-2560~1



거점병원으로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유방암' 풍문으로 들었소?

유방이 크면 유방암 확률 높다? 유방이 작으면 암 세포 생길 자리도 없다?
단순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크기가 크면 유방조직이 많은 경우라면 확률은 높다. 암은 딱딱한 유방조직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 유방이 많은데 이는 지방보다 유방조직이 많다는 말이다. 살이 빠지면 가슴이 작아지는 것은 지방 조직의 변화이다. 살이 찌면 여성호르몬이 많아져 위험률은 더 있다고 본다.

폐경기 이후, 유방암 걱정 NO?

우리나라는 현재 40대 중반 이후 발병이 많지만 미국의 추세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생활패턴이 서구화되어가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 추이도 따라갈 것이다.

여성호르몬제 복용하면 예방이 된다?

갱년기 증상 등으로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는 득과 실이 있다. 유방암만 생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유수유를 하면 예방이 된다는 말도 생리를 안 하는 동안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라면 복용해야 하고 산부인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검사 후 처방한다. 또 심장질환자는 10년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가슴 성형수술을 했는데..... 유방암 진단 어렵다?

그렇지 않다. 유방성형은 유방의 근육 밑으로 보형물 삽입을 하기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유방암 검사 후 '석회화' 라고 하는데 유방암 가능성 있다는 말이다?

석회화으로는 아니고 모양 자체가 악성인 경우는 간혹 있다. 세포가 죽은 자리에 칼슘이 축적되는 것이 석회화인데 암 세포는 빨리 자라서 간혹 그 빈자리에 생길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모양이 다르다.



여성의 자궁 검진은 성 경험과 함께 시작하라는 황성욱 교수

여성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기, 자궁

여성 건강 위협하는 대표선수,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암

산부인과는 출산 한 여성에게도 부끄럽고 어색한 곳이다. 부인암은 1년에 한 번 검사만 받아도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은 병변이 발생해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병으로 자궁 세포진 검사만 규칙적으로 받아도 전이되기 전 발견되며 자궁 보존 치료도 가능하다.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는 여성 검진의 적당한 시기는 성 경험과 시작된다고 전한다. 자궁경부암은 성관계로 옮겨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므로 성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질 초음파'는 필수 검사이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예방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건강한 자궁을 위해서는 씻고 잘 말려주는 것과 건강한 성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부인암 검사, 원스톱 서비스 가능

부인과 수술은 복강경 수술, 자궁 동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부인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여 웬만한 검사는 당일 가능하다. 장점과 방사선과 등 밤낮없는 타과의 협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자궁경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 자궁경부암의 진단 등을 위한 자궁경부 원추형 생검술 역시 급속한 경우라면 당일 가능하다.

인하대병원 산부인과는 신관3층 여성전문건강센터 내 안쪽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황성욱 교수는 3층까지 올라오는 것이 배부른 산모들에게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부인과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꽤 찾으시는데.... 등 은근 걱정을 했지만

의외로 새 건물에 환한 불빛, 밖이 시원하게 보이는 창문이 있어서

좋다는 반응에 마음이 놓인다고 전한다.

산부인과는 임신부와 태아를 관리하여 최상의 건강을 도모하는 산과와

부인병을 다루는 부인과로 나눈다. 여성의 생식 기능과 연관된

정상 생리 및 질병을 다루는 의학 분야이다.



어렵다는 산부인과 현실이지만 산과 의료진 2명을 추가로 초빙하는 등 파워풀한 팀워크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산모와 아가들의 든든한 지원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넓고 쾌적한 가족분만실

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은밀한 공간, 자궁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 역시 늦어져 이른바 '노산시대'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위험 산모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늘고 있다.

당뇨와 고혈압, 내분비계 질환 등 내과적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인하대병원 산과에서는 다학제적 협진으로 임신 중 관리와 분만, 분만 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산모와 아가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어 초극저체중아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

'노산시대' 대비, 산모와 태아 모두 지켜낸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의 수가 줄어들고 산부인과의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이른바 원정 출산을 가야 한다고 한다.

인하대병원 산과는 3명의 산과 전문의가 인천지역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학병원답게 위촉된 현실에서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노산시대'를 대비한 완벽한 시스템을 끝냈다.

넓은 공간으로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공하는 가족분만실은 남편과 산모가 같이 진통과 분만에 참여하여 태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최근 4D까지 가능한 정밀 초음파 장비를 갖추어 태아의 심장과 머리(뇌)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양수, 융모막 검사, 정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특수 검사는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문의 : 산부인과 ☎ 032-890-2270

이슈 특특!! 황성욱 교수

예방적 난소 절제술만이 완전한 예방일까?

골반의 깊은 곳에 있는 난소, 그래서 난소암이 진행하기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받는 시기가 늦게 되는 것이다. '안젤리카 줄리'의 선택은 난소암은 예방하겠지만, 여성호르몬 부족 현상, 노화 촉진, 갱년기 증상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전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규칙적인 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소암은 조기발견만 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3대에 걸쳐 유방암, 난소암이 있다면 유전자 변이 검사는 필요하지만, 발병 확률에 지나치게 집착해 불필요한 수술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핫라인 사례

개인산부인과 출산 중 응급 핫라인으로 전원, 산모와 태아를 살리다! 응급으로 분산실에 도착 당시 태아의 심박수는 명확히 체크되지 않았다. 바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 후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수술 당시 태반조기박리가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 양막이 풍선처럼 밖으로 나오고 자궁문이 열린 조산 산모 역시 핫라인으로 밤 9시쯤 전원된 산모였다. 자궁문이 열려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산모의 경우는 양막을 다시 넣어주고 자궁문을 묶어주는 일명 '맥도널드' 수술로 조산을 막을 수 있었다. 최근 노산이 늘면서 조산 역시 느는 추세다.

10대 & 20대 산부인과 클리닉

엄마의 관심이 필요한 내 딸의 작지만 소중한 자궁

- 생리불순, 생리통, 하복부 불편 등의 증상이 있을 땐 호르몬과 관련된 산부인과 생식 내분비 관련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전문 의료진을 찾으시면 된다.
- 사춘기 등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인과적인 문제는 성인 여성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원인이 다르므로 진단과 치료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학업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생리불순이 오기 십상인 10대이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자. 또 성 경험 이전인 15세~17세를 자궁경부암백신 접종 시기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내 딸의 소중한 자궁을 아름답게 지켜주자.
- 20대 이후 생리통과 생리불순은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의 신호일 수 있다.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미리 점검받도록 하자.

Obstetrics Gynecology
2

우리의 고향 자궁,
은밀한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거나...

‘의학적 안전, 환자 부담 최소’

행복한 척추 건강을 잡는다!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되어 그사이에 존재하는 뼈 구조물인 척추는 목뼈(경추), 등뼈(흉추), 허리뼈(요추), 엉치뼈(천추), 꼬리뼈(미추) 등 33개의 많은 뼈로 구성된다. 성인이 되면 천골과 미골이 각각 유합되어 26개의 뼈로 구성된다.

척추는 머리뼈부터 골반뼈까지 연결하여 중심축을 이루어 우리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한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으로 신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조규정 센터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과잉, 고가의 진료 우려를 지적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치료 원칙이 척추 센터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조규정 척추센터장은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진료마인드를 강조하며 용기 있는 출발을 시작한다.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척추 기형, 골절, 척추 암 등 척추에는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발생한다.

척추의 뼈는 관절과 디스크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부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척추뼈 안으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면서 신경 마비와 같은 증상도 일어난다. 이처럼 척추 질환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의 진료

척추센터로 내원하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1차 진료를 하게 된다. 진료 후에는 치료 방향에 따라 재활의학과 또는 통증센터로 의뢰하여 치료받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구역에 모여 있어 언제든 융합치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의 치료 과정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의 치료 기본 과정은 ‘비수술 치료인 약물 치료(먹는약) & 물리치료 - 주사치료(척추에 직접 시술) - 수술’이다.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약물 치료 6주 정도를 지켜보는데 화상실 가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치료 기본과정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수술과 비수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경과를 보고 신중하게 예측하여 치료법을 선택하고 결정 내린다.

의학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고가의 시술이 너무 남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에서는 안전하고 확실한 최소 침습적 접근과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척추질환 관련 모든 과와 한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3개 진료과 7명의 전문 의료진이 모인 곳이다.

“척추질환자가 늘면서 척추 전문 병원도 늘어났고 과도한 경쟁의 출혈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기도 하죠.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비급여의 비싼 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려 합니다.” 전체 수술비용을 비교해 보면 확실한 비교가 될 것이라는 조규정 센터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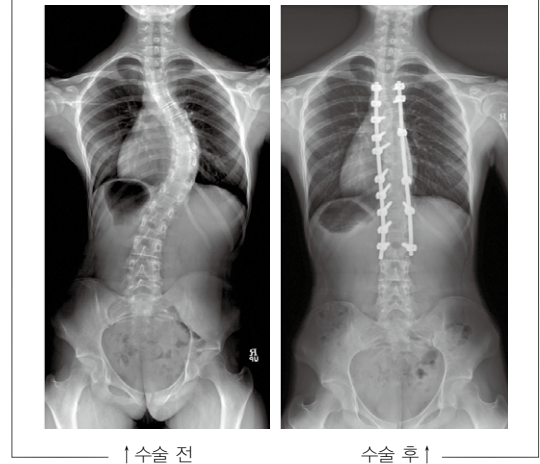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합병증 많고 수술 결과도 좋지 않아 재수술이 많은 고령 환자의 수술과 재수술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실력과 의료진이 모인 집단이다.

가족처럼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병원, 환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행복한 센터로 용기 있는 출발을 시작했다.

인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수술비용도 좋은데 치료 후 결과는 더 좋은 병원’, 퇴원 후 정기적 피드백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균형 잡힌 인하대병원 척추센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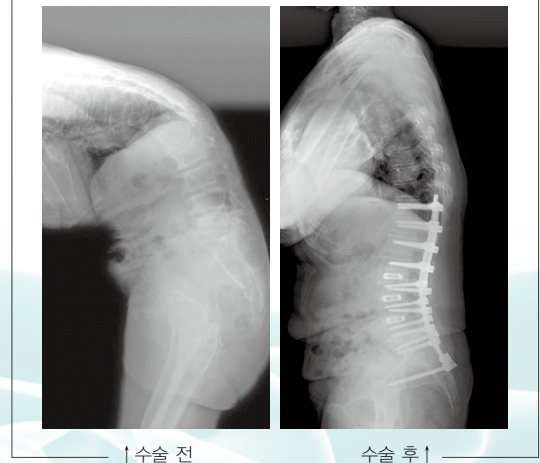
●문의 : 척추센터 ☎ 032-890-2619

척추 측만증 교정술



↑수술 전 ↓수술 후

요부변성 후만증 환자 수술



↑수술 전 ↓수술 후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한 척추센터 의료진의 고난도 척추 시술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의 빛나는 tip

S라인 척추 건강법

척추센터의 조규정 교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척추건강 캠페인이다. 허리의 커브 유지를 강조하는데 앉아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 허리 아래쪽을 받쳐주고 등이 튀어나오는 S라인 커브를 유지해야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자세든지 1시간 유지, 5~10분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MRI VS CT, 어떻게 다른 거야??

X-레이 촬영 하나로 디스크 신경을 볼 수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다. 필요에 따라 CT나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내에서는 이동 거리 없이 진료, 검사, 치료가 이루어진다. MRI 촬영으로 디스크 신경을 보고 X-레이와 MRI로 디스크 확인이 가능하다. CT 촬영은 뼈 상태를 자세히 보기 위한 것이다.

디스크, 또 재발한 거야?

척추는 하나의 장기가 아니다.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으로 봐야 한다. 3번과 4번 사이의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 4번과 5번에 새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환자들은 '허리'를 통째로 생각해서 이것을 흔히 재발했다고 표현한다. 똑같은 번호에 다시 발병해야 재발이다.

우리 몸을 지키려는 신호, 신이 주신 선물 **통증**

없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양면성을 가진 아누스 얼굴 통증! 원인을 제대로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인하대병원 통증센터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인천지역에서 통증센터를 제일 먼저 도입한 인하대병원 통증센터는 전문적인 통증수련을 통해 많은 후학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 통증 의료계의 선두주자이다.



통증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동 영역이 넓은 차영덕 센터장

Pain Center

4



차영덕 센터장을 선두로 김병건 임상강사(사진 맨 오른쪽)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에 주력하는 통증센터 의료진



1 인천지역에서 통증센터를 제일 먼저 도입, 전문적인 수련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 몸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감지하여 통증 부위, 신경손상 부위와 범위를 찾는 적외선 체열 검사실 3 신관으로 이전한 쾌적한 통증치료실

통증은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만일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뜨겁다, 배가 아프다,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등의 통증이 없다면 어디가 이쁜지 알지 못해서 치명적인 상처나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폐암과 간암의 발견이 늦는 것도 바로 이 통증, 신호가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 경고이니 마냥 안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경보음을 보내는 급성통증을 내버려 두면 만성통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고 삶이 괴로워진다.

수년 전, 행복전도사로 불리는 (故)최윤희 씨는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길을 떠났다. 대중에게 '행복 멘토' 였던 그녀는 삶을 포기할 만큼 극한 통증을 겪었음이 짐작된다.

그 자리에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인하대병원 통증센터는 여러 원인에 의한 통증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약물치료 이외에 신경차단을 이용한 신경치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진료대상 질환으로는 요하지 통, 목·어깨·상지 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두통, 삼차신경통, 근근막통증증후군, 암성 통증 등이 있으며 통증 질환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와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진단은 사전 예진과 진료, 영상 검사, 체열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과 부위를 파악하고 증상에 적합한 약물 치료와 C-arm형 영상조영장치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신경과괴술과 신경자극술을 이용하여 통증을 치료한다. 이외에도 신경성형술(neuroplasty), 인대증식치료(prolotherapy), 통증유발점 주사, 대체치료법 등을 보조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6년부터 통증 치료 시작, 통증 제로를 향해 달린다!

차영덕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인하대병원 통증센터는 모든 통증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목표에 온전히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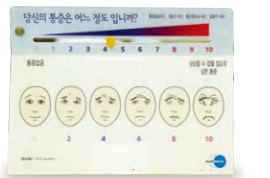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는 한국적 정서는 이제 끝났다. 시간이 해결 줄 것이라고 무시코 넘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고령화 시대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관절질환, 척추 질환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과 긴밀한 협진체제는 물론 한공간에 있어 융합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인하대병원 통증센터의 장점이다.

1996년도 통증 진료를 시작한 인하대병원의 통증센터가 있다. 통증센터팀은 물리적 치료뿐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자극해(?) 통증을 줄여주는 몸속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생성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통증 제로를 향해 달린다.

● 문의 : 통증센터 ☎ 032-890-3921

이런 통증 위험하고 저런 통증 예방할 수 있다!!



스멀스멀 기는 듯한 이상한 감각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통이다. 대상포진이 완전히 호전된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한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해서 칼로 썰시는 느낌, 벌레가 스멀스멀 기는 듯한 이상한 감각, 머리가 띵이 달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나고 사소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다른 만성통증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지속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곤란을 초래한다.

은몸에 통증이?! 조기치료 중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통증은 손상의 정도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며 해당 손상이 해결되거나 사라졌음에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해당부위가 주로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양상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러한 통증은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경향이 있고 흔히 해당 부위 조직의 부종이나 피부 색깔의 변성을 동반하게 된다.

치료가 늦어지면 통증 부위가 주위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고 악화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뇌’ 관련 질환, 환자 중심의 융합치료

5 Neurology & Neurosurgery Center

인하대병원은 뇌신경 질환의 통합 진료를 위해서 신경외과와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된 ‘뇌신경센터’를 개설하였다. 뇌신경 질환에 대한 진료, 수술, 치료, 관리, 예방 등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신경외과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두개저 수술기법을 사용하는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뇌, 생명활동의 중추

뇌는 신경계의 중추이자 모든 생명 활동의 중추이다. 우리 몸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은 결국에는 뇌에서 인지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판단하는 거의 모든 운동은 뇌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뇌의 질환은 이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생명활동의 장애를 의미하기도 한다.

뇌의 복잡한 질환

환자는 ‘증상’을 갖고 인하대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하기만 하면 적절한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뇌신경센터 내 신경외과는 뇌종양, 뇌혈관질환, 안면경련, 삼차신경통(안면통증), 등의 질환 등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삼차신경통 환자가 늘고 있는데 갑자기 치통으로 생각하기 쉬운 통증이 얼굴에 벼락같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 증상으로 나이든 여성에게 자주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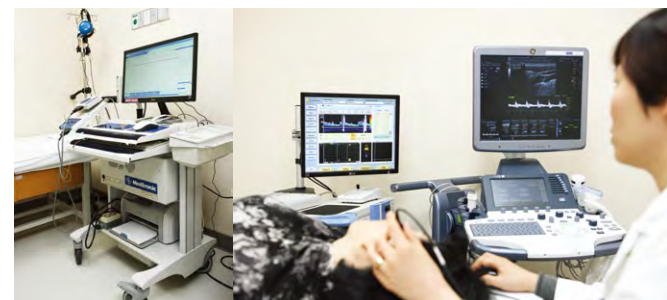
뇌종양 초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력이나 시야의 경미한 장애 등의 가벼운 증상인 경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효과적인 유기적 치료

반드시 수술치료만 도움이 된다거나 약물치료만 해야 하는 경우는 각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센터에서 유기적 진료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약물 또는 수술치료로 적절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는 뇌종양,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등에 대한 수술치료가 전문인데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술 및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통증 중 가장 심한 통증 중 하나인 삼차신경통 치료는 미세혈관감압술(삼차신경-뇌혈관 분리감압술), 고주파 삼차신경근 응고술, 삼차신경절압박술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뇌신경센터의 다양한 검사실



치매, 뇌신경 이상이 가져오는 질환

약물치료가 필요한 뇌신경 질환

뇌신경센터는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뇌염, 등의 뇌질환, 말초신경 질환, 근육질환, 척수질환, 두통, 통증 수면장애, 간질, 어지럼증 등을 진료한다. 정신의학과와 다른 점은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신경계에서 생기는 치매까지 포괄한다는 것이다.

“보통 장애가 발생했다면 말초 질환 원인이 아닌 경우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졌다, 성격이 변했다’ 등도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뇌신경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반인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뇌신경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최성혜 교수는 애매한 경우,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한다.

머리를 쓰는 지적 활동 뇌질환 예방

뇌와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질병 증상 완화와 기능을 좋게 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신경과의 목표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선정, 치매치료의 연구 활동 중인 신경과 최성혜 교수



특히 머리를 쓰면서 뭔가를 배우는 지적활동을 통해 뇌의 시냅스가 강화될 수 있는데 일기쓰기, 바둑, 외국어 배우기, 글씨를 배우기 위한 노력 등 생각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좋다.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많이 갖는 것도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인천지역, 특화된 최고의 뇌신경센터

인하대병원 뇌신경센터는 책임과 각오가 남다르다. 특히 수면 말초신경, 근육, 척수질환은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분야다. 또한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의 중심으로서 전국 30개 센터를 담당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측하는 연구과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뇌신경센터는 ‘환자가 원하는, 환자를 위한’ 진료서비스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한다.

● 문의 : 뇌신경센터 ☎ 032-890-2370, 2375

SDQ(Samsung Dementia Questionnaire)

SDQ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치매 환자의 병 전과 발병 이후의 인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 검사로 개발된 설문지이다. 긴 설문지는 아니나 치매 환자의 정보제공자는 노인들인 경우가 많아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 | |
|---|--------------------------------|
| 01.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 08.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
| 02.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 09.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
| 03.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다. | 10. 텔레비전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
| 04.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예: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제삿날, 등). | 11.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
| 05.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다. | 12.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
| 06. 약속을 해놓고 잊는다. | 13.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
| 07. 이야기 도중 방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잊는다. | 14.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있다. |
| | 15. 과거에 쓰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어졌다. |

- 그렇지 않다 = 0점, 간혹(약간) 그렇다 = 1점, 자주(많이) 그렇다 = 2점
- 8점 이상이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환자의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사항 기준).
-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작성할 경우 환자의 관계 동거 여부, 환자의 상태 인지 정도를 표기하게 된다.

뇌도 나이를 먹는다!! 신경퇴행성질환, 파킨슨병

- MRI 검사와 도파민 전달과정을 보는 페트 검사가 있다. 인하대병원 뇌신경센터에는 동위원소 물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며 치매는 당일 검사 가능하다.
- 뇌기능 평가로 ‘물고 답하기, 기억 써보고, 그려보고, 암기하기, 시공간구성력, 전두엽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나이와 학력 고려하여 판단한다.
- 결과에서 움직임이 떨어졌다 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괜찮은 것으로 본다.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면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 우울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비슷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Vascular Surgery

6 혈관 = 생명

이어주고, 만들어주고 생명선을 확보하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막힘없이 혈액을 흐르게 하는 혈관, 우리 몸 구석구석 뻗어 있는 혈관은 지구를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길이인 10만 Km나 된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고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인하대병원 혈관외과는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과 긴밀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한 협진,

최고의 파트너로 생명선인 '혈관'을 사수한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혈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먼저 나이 들어간다. 자각할 수 있는 증상도 별로 없고 기존 의료기술로는 혈관 자체가 퇴화하는 것을 막을 치료방법은 없다. 생명을 잇아가는 질병 중 많은 것이 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혈관외과라는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이다.

“혈관을 수술하는 진료과라고 말하면 쉬울까요? 혈관외과는 뇌와 심장을 제외한 인체 전반의 동맥, 정맥, 림프관에 발생하는 질병, 선천성 기형, 외상, 종양 등을 진단 치료, 연구하는 외과의 특수한 분과입니다.”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핫라인으로 콜을 받으면 언제나 생명선 사수를 위해서 달리는 혈관외과 홍기천 교수의 설명이다.



혈관외과 내 치료교육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홍기천 교수

혈관외과 인식부족으로 관절·디스크 치료만 1년 한 후에야 찾아

혈관외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대병원처럼 혈관외과가 단일과로 진료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의 소수 병원에 불과하다. 인하대병원 혈관외과는 그동안의 치료 성과를 혈관외과학회, 인터벤션학회, SCI 논문에도 여러 편 발표하기도 했다.

“외래진료 시 찾아온 하지 혈관 폐색증 환자에게 물어보면 다리가 아파서 관절 및 디스크 치료만 1년 이상 다니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비로소 혈관외과에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니 당연히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막힌 혈관을 재건해 주는 혈관 내 중재적 치료나 혈관 우회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된 사례를 홍기천 교수는 전한다.



유기적 협진의 최고 파트너, '혈관외과 드림팀' (왼쪽부터 흉부외과 김정택 교수, 백원기 교수, 외과 홍기천 교수, 흉부외과 이미나 임상강사, 외과 박근명 임상강사)

인하대병원 혈관외과의 진단과 치료

인하대병원 혈관외과는 혈관검사실을 운영하여 '당일 진료·당일 진단' 시스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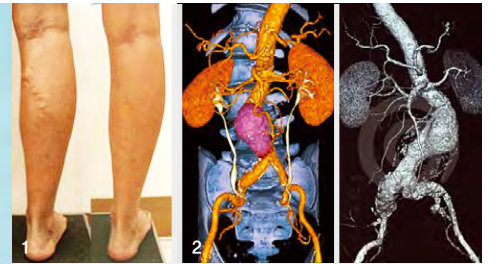
정확한 자료를 통해 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동맥질환이나 정맥질환에 따라 초음파, 상완하지 혈압지수, 혈관 단층화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정 치료 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보다 예방 위한 지속적인 교육활동

인하대병원 혈관외과는 치료보다 예방에 가치를 두고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혈관질환을 발생시키는 주범은 다행히 흡연이나 과음, 스트레스, 비만처럼 자신의 의지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전부터는 혈관외과 내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본원 출신 혈관관련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진료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혈관외과는 유기적 협진을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천지역 최고의 '혈관질환 드림팀' 으로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문의 : 혈관외과 ☎ 032-890-2166



- 1 하지정맥 시술 전후
- 2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복부대동맥류' 가 진단 된 CT 사진
- 3 초음파를 이용한 혈류 속도 측정



혈관외과 질환

디스크 저림 증상 같은 다리동맥폐색증

동맥이 풍선이나 파리처럼 팽창하여 마지막에 파열되는 가장 흔한 동맥질환으로 동맥 경화 중에 의해 발병한다.

인하대병원 혈관외과 '다리동맥폐색증' 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중의 대다수가 1년 이상 관절이나 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경우이다. 다리 저림이 있는 환자는 허리디스크, 관절염, 당뇨병 성 신경증과 함께 꼭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어느 정도 견다보면 종아리가 당기는 통증이 온다. 잠시 쉬면 또 안 아프고 걸으면 또 통증이 반복된다. 동맥경화증이나 혈전이 생기는 부정맥 환자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

배꼽의 덩어리 시한폭탄, 복부대동맥류

복부의 동맥이 풍선처럼 커지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치명적 결과를 부른다. 동맥경화 등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드물지만 감염,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간혹 복부에서 박동하는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으로 스크리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단을 놓쳐 파열되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예방하고 있다.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남성, 음주, 비만 등이다.

울퉁불퉁한 각선미, 하지 정맥류

생명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미용상 문제가 되는 불편한 질환이다. 정맥이 보내줄 힘이 없다. 정맥 내부에는 밸브(판막)가 있어서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맥 내 압력이 높아져 밸브가 손상되면 심장으로 보낼 줄 힘이 없어지게 된다. 이때 혈액이 역류하여 늘어난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 하지 정맥류이다.

간혹 정맥이 지나치게 파랗게 보이는 경우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이며 서 있을 때 구불구불해진 다리 혈관이 2mm 이상이면 하지정맥류 진료가 필요하다. 2mm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맥 밸브(판막)가 정상이면 큰 문제는 아니다. 가족력이 있고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Breast Reconstruction

유방재건의 원칙

유방재건은 그 시기에 따라 외과외사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연속적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을 재건하는 즉시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고 나서, 필요에 따라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 재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재건하는 지연 유방재건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 절제 후 유방재건 수술 시기는 재건술의 발달과 환자의 정신적 영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지연 재건수술에서 즉시 재건 수술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시 유방재건술에 대해 환자에게 의학적인 금기가 없다면 지연재건수술에 비하여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즉, 즉시 유방재건술의 경우, 유방을 절제한 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피관(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부위 피부조직의 일부)이 유연하여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대쪽 유방과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고, 유방 밀주름의 재건이 용이하여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마취와 입원으로 재건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도 지연 재건 시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

여성으로서 당당히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 있기에 유방재건 수술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최근에는 환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져 유방암에 걸린 경우 병의 치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정상적인 모습을 다시 갖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환자들 마음의 상처를 지워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글 김연수 교수 / 성형외과

술동기와 재건수술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 환자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왜 유방재건 수술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이 미국에 비해 더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며, 젊은 연령의 유방암 발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방은 여성다움과 모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은 남성의 경우 거세에 비교될 정도라고 합니다. 흉한 모양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초래하며 신체적 불균형으로 생활에 불편이 따릅니다. 옷맵시도 나지 않아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브래지어는 위치가 변하거나 땀이 차서 불편합니다. 암을 먼저 치료해서 살고 봐야 하는데 유방이 있고 없고를 걱정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유방재건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후 항암치료 등 유방암의 보조적인 치료는 계획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방재건 수술의 방법

유방재건 수술은 크게 자신의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 절제 방법이 결정되며, 이 절제 방법과 보존된 조직, 환자의 상태,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선호하는 방법들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대개 자기 자신의 조직으로 복원하는 것이 수술시간이 길고 방법이 어렵지만, 유방 삽입물을 이용하

는 것보다 촉감이 좋고 다양한 모양에 맞추기가 유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랫배 조직, 즉 배곧은근 피관을 이용하는 경우 튀어나온 아랫배의 조직을 이용하여 유방을 복원해 줍니다. 한쪽 배 근육(배곧은근)과 아랫배의 피부와 지방을 가슴으로 이동하여 유방을 만들어 줍니다. 아랫배도 날씬해지고 유방도 재건하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 삽입물이나 등의 조직에 비하여 촉감이 더 자연스럽고 상당히 큰 유방도 재건이 가능합니다. 아랫배에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임신과 분만도 가능합니다. 아랫배 조직은 현재 미국에서 유방재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가 조직입니다. 유방의 피부를 보존하면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 방법으로 유방을 복원하면 결과가 매우 좋아 수영복을 입어도 잘 몰라볼 정도입니다. 배곧은근 피관으로 유방재건수술을 시행한 경우, 젖꼭지와 젖꼭지판은 3~6개월 지나서 만들게 되는데 양쪽 유방의 대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의 확대나 축소술, 또는 유방하수 교정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배곧은근 피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술 후 복부 근력의 약화나 탈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유방복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수영, 테니스, 골프, 등산 등 운동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었고 탈장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으며, 수술 후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수술을 받은 후에 정상 분만으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경우 남아 있는 피부가 충분한 경우 가슴 근육 밑에 실리콘 주머니로 된 유방 삽입물만 사용함으로써 유방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유방 모양이 표준에 가깝고, 너무 마른 체형이라 충분한 자가 조직이 없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공 부위 수술이 필요 없고 수술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유방 삽입물은 나중에 삽입물 주위의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삽입물이 터질 위험이 뒤따릅니다.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부족한 경우 조직 확장기를 넣어 오랜 시간을 두고 생리식염수를 정기적으로 주사기로 주입하여 피부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달 후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면 2차 수술을 통하여 조직 확장기를 빼내고 유방 삽입물로 교체합니다.

인하대병원은 3월 중순 신관 증축 개소과 함께 여성전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재건 수술은 성형외과와 외과 교수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방성형 등의 시너지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재건술을 받은 후 항암 화학요법, 호르몬 투여, 방사선치료 등을 연계하여 통합관리로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평소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후 절제된 유방에 실망하기보다, 여성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유방재건 여성전문의를 찾는 것도 암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 유방·갑상선외과 센터 ☎ 032-890-2560~1

조직확장기나 유방삽입물을 이용하는 방법



성형외과 전문의 's view

같은 여자라서... 환자의 아픈 가슴을 안으며 여성의 건강을 위한 유방을 만듭니다!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배곧은근 피관으로 즉시 유방재건술을 받았던 환자가 유두재건술을 받기 위해 5년 만에 외래로 찾아오셨다. 미혼이었던 이 환자는 유방암의 가족력도 없었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유방암 선고로 삶의 희망을 잃을 뻔했다고 5년 전 일을 회고하였다.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맞아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전혀 다른 분을 보는데,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니 좋은 일만 가득한 것 같으며, 유방재건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같은 여자인 내 가슴을 더 벅차게 한 것은 좋은 유방재건술을 받은 후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LA에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보낸다는 소식이었다. 유방재건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급여화함에 따라 유방절제로 인해 상실감에 빠진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재건수술'을 할 때 '성형수술'이 아님을 모두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혜택 누리세요! (4월 1일부터 적용)

1.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2. 한 쪽 가슴 혹은 유두가 덜 발달되거나 없고(대흉근 결손), 짧은 물갈퀴 모양의 손가락(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에게 시행할 경우
3.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하는 경우



담쟁이 뒤엉킨 축대...

그곳 영욕 아는 듯

송학동은 부자 동네였다. 사람 키 서너 배 넘는 돌 축대와 담쟁이로 둘러싸인 높은 담장 그리고 넓은 정원과 육중한 철문.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택들이 바다를 향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다 자유공원에 놀러갔다 그 곳을 한번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대문 앞에서 자가용을 닦으며 사장님을 기다리던 운전수의 눈초리가 여간 무서웠던 게 아니다. 실제로 4, 5대 국회의장을 지낸 광상훈 씨 등 고관대작이나 항만 관련 사업을 하던 경제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서울사람들이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인천에도 성북동 같은 동네가 있네' 하고 의아함과 놀라움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동네가 바로 송학동이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松鶴洞

자유공원의 일부를 품고 있는 송학동

송학동은 동네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송(松) 자로 시작하는 송현동, 송림동, 송월동과, 그리고 '학(鶴) 자 돌림의 청학동, 선학동, 문학동과 헛갈려 정작 인천사람들도 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중구 송학동은 자유공원(응봉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다. 앞쪽으로 막힐 게 없어 인천 앞바다가 고스란히 보이는 양지바른 곳이다.

송학동은 자유공원의 일부를 품고 있다. 바다와 항구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유공원은 한때 인기 있는 신혼 여행지였다. 주말이면 웨딩마치를 막 끝낸 신혼부부를 태운 오색 테이프로 치장한 대절 택시들이 공원 언덕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수도권에 살던 사람치고 맥아더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의 자유공원은 산책로에 줄지어선 이름드리 벚꽃나무로 특히 유명하다.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심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1975년 인천라이온스는 일본 나가사키, 기타큐슈 등 자매 클럽의 도움으로 3년 계획으로 1천 그루를 심었다.

만국공원 시절, 이 공원은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휴식과 위락 공간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의 열기가 찾아들기 전인 4월 2일, 만국공원에 비밀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규갑, 이종욱, 안상덕 등 전국 13도 대표들은 이날 독립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만천하에 선포할 것을 결의한다. 바로 상



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한성임시정부’다.

한성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해 일종의 ‘의회’의 역할을 한 중요한 회의였으며 당시 임시정부의 통합에 있어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한 회합이었다.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독립정부를 세우려는 의지를 가진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최초의 모임이었다.

2층 누각 석정루와 장구 장단에 풍류를 즐긴 ‘연오정(然吾亭)’

자유공원은 추억의 공간이다. 세월이 흘러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설들로 공원은 언제 어느 때 찾아도 푸근하다. 웅봉산이 바다로 내려 달리다 급정거를 하며 깎인 지점에 늘 그림처럼 서 있는 팔각정, 석정루.

목재업과 조선소로 큰돈을 벌었던 이후선 사장이 30여 년간 자유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지켜온 데 대한 보은으로 1966년 시민의 휴식처가 될 2층 누각을 지어 인천시에 기증했다. 출생지가 월미도였던 연유로 월미도를 바라 볼 수 있는 공원 서쪽 언덕바지를 누각의 위치로 정했다. 누각명은 주변의 강권으로 자신의 아호를 따 ‘석정(石汀)’루다. 당대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서예가 박세림 선생이 현판 글씨를 썼다.

이보다 앞서 한미수교기념탑 쪽에는 ‘연오정(然吾亭)’이란 육각형 단층 정자가 있었다. 이 정자는 송현동 100번지에 살던 조길 씨가 그의 부친인 독립운동가 조훈 선생이 생존 시 당부한 뜻을 받들어 1960년 8월 350만 원의 공사비로 건축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장구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며 풍류를 즐겼다.

전서구 사육장과 탱고스튜디오

일제강점기 소월미도에는 인천관측소와 일본군 군용기지를 오가는 전서구(傳書鳩: 통신용 비둘기) 사육장이 있었다.

“인천관측소에서 매일 아침 작성되는 기상표도(氣象表圖)는 한차례 결항됨이 없이 인천에서 경성 여의도비행장으로 운반되어, 그 날그날의 항공 여객과 항해 여객에게 안심하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화로 보낼 수 없고 기차로는 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천 경성간의 기상도 체송(遞送)을 전서구 날개에 맡길 때에는 겨우 15분에서 30분쯤 걸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어렵지 않게 날라가게 되는 것이다.”

전서구의 활약상을 알리는 1932년 7월 동아일보 기사다.

최근 대한민국의 개항사를 뒤흔든 ‘사건’ 이 있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가 새롭게 ‘발견’ 된 것이다. 개항기 조미수호통상



1 예전에 비둘기장이 있었던 공원 광장
2 맥아더 동상 앞에서 거행된 시민의 날 '제물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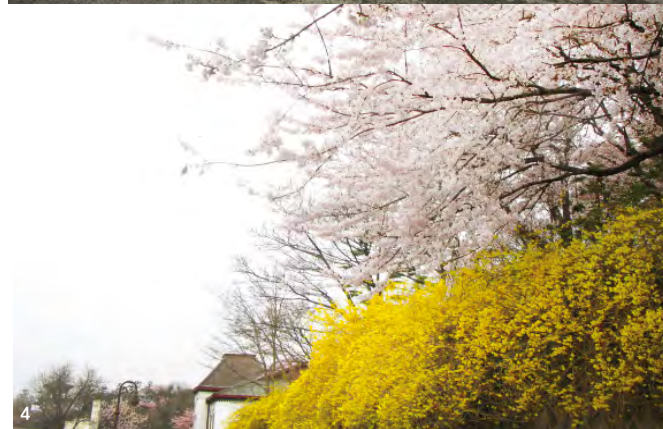
조약을 맺은 장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화도진이나 현 파라다이스호텔이 아닌 석정루 아래 ‘탱고스튜디오’(옛 극동방송국) 자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이 자리는 인천 유일의 방송국이 들어선다. 1956년 극동 지역 선교 방송인 HIK(국제복음주의방송국)가 학익동 갯벌 위에 송신 안테나를 세우고 1962년 이 인천해관 관사 자리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특수 방송 시대를 연다. 1967년 서울 마포로 이전한 이후 웨딩홀,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되었다.

담쟁이넝쿨 계절따라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는 ‘홍예문(虹霓門)’

반세기 동안 송학동의 모양은 많이 변했지만 이 동네의 풍치를 그 런대로 간직하게 하는 것은 100년 세월의 이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돌문 때문이다. 이 문은 윗머리가 무지개 형상을 했다고 해서 ‘홍예문(虹霓門)’이란 예쁜 이름을 얻었다.

1883년 개항 후 중앙동, 신포동 일대에 터를 잡은 일본 거류민들은 전동과 만석동 방면으로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웅봉산 산허리를



3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
4 구한말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 공간 제물포구락부
5 홍예문 \ 6 드라마 '피아노'에 나온 수아(김하늘)의 파란대문집



질라 문을 낸다. 그들이 보기에 산의 혈(穴·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했는지 일본인들은 이 문을 ‘혈문’이라고 불렀다.

일본조계에서 경인철도의 축현역(현 동인천역 부근)으로 우마차를 이용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지름길이 필요했다. 1905년 일본 공병대가 앞장섰고 중국인 석수장이와 한국인 노무자를 동원하는 등 난공사 끝에 3년이 지난 1908년에 완성했다. 지금도 문 앞 벽에는 쪼아내다 내버려둔 거대한 암석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높이도, 6.7m의 폭도 그대로다. 당시 우마차는 교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자동차로는 어렵다. 양쪽 오르막을 넘어 달리는 차들은 고개 정점인 이 문 앞에서 ‘우선멈춤’을 해야 한다. 이 돌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라고 묵묵히 얘기하고 있다.

그때, 이곳 송학동

담쟁이집 수아네

구락부 아랫길에는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이 몇 채 남아있다. 그중에는 드라마 ‘피아노’에서 수아(김하늘 분)의 집으로 나왔던 파란대문집도 있다. 드라마가 한창 상영될 때 담쟁이 넝쿨을 뒤집어쓴 이 2층 집은 팬들이 적어 놓은 글씨로 빼곡했다. 12년이 되었건만 봄 햇살을 받은 창문으로 수아가 해맑은 얼굴을 내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국제복음주의방송국

1956년 12월 23일에 개국해 1961년 1월 19일에 방송국 명칭을 국제복음방송국으로 변경하고 1962년 7월 1일 자유공원 석정루 아래로 연주소를 신축하고 이전한다. 67년 5월 1일에 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해 12월 23일 연주소를 서울 마포구 상수동으로 이전한다.

인천시역사자료관

일제강점기에 중앙동 4가에서 집화상 등을 운영했던 일본인 사업가 코노가 별장으로 사용하였고, 광복 후에는 ‘송학장’이라는 댄스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66년에 인천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으로 사용 중이다.





‘잊는 것 말고 만남’을 기억합니다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 같은 거 아닐까요?

지난해 사극 정도전에서 ‘하륜’으로 살아온 이광기는 요즘 KBS 1TV 대하사극 ‘징비록’에서 왜군 선봉대장 ‘고니시 유키나’ 역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수원드라마제작센터를 찾았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월드비전 제공



동안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

왜군 장수 복장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머리에 캐주얼 차림의 그가 미중을 나온다. 리즈 시절이 연상된다.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날렵한 편이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등산도 해요. 식단관리도 조절해서 먹는 편이고 담배는 끊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술은 가능한 면 자제하고 육식은 좀 피하고 그래요.”



↑ 아이드림 자선 미술 전시회 자선 바자회 등의 수익금으로 아이티 어린이에게 꿈을 주고 싶다. / KBS의 대하드라마 ‘징비록’에서 열린 중이다.

나의 꿈과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이루는 시작점, 카페 ‘아이드림’

“경기도 외곽의 작은 카페이지만 나와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좋겠어요. 2010년 아이티를 다녀온 후 기도하면서 생각난 일이지, 아이티를 다녀온 후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이광기 씨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은 건 2009년 신종플루로 아들 석규를 떠나보낸 다음 해의 일이다. 아이티를 다녀온 그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더 우울한 사람도 많음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나눔을 통해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소이 캔들을 판 수익금으로 아이티와 아프리카에 태양열 랜턴을 보낼 예정이고, ‘Love & Bless’ 티셔츠는 계속 판매 중이다. 티셔츠의 그림은 아들 석규가 생전에 아빠라며 그려준 그림이다.

아이티 심장병 수술 기금 마련

오는 5월쯤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할 거고 가을에는 아이드림 자선 미술 전시회, 자선 바자회 등을 할 작정이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내 마음의 즐거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미술, 사진 등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하고 싶다는 그는 얼마 전 ‘세바퀴’ 녹화장에서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들의 동영상을 찍어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이들에게 보내주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한내세요’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죠.”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를 들라 하면

인생의 힘든 굴곡을 버텨온 그에게 인생지침 3가지를 물었다.

“기쁨은 곧 ‘긍정적인 생각’이죠. 아마 힘든 상황에서 제가 기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 닦았을 때 홀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아프고 힘든 인하대병원 환우에게 봄 메시지를 전하다!!

“병원에 있으면 일단 두렵잖아요? 그런데 봄이잖아요?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 같은 거 아닐까요? 요만큼 아픈 것, 가족들과 같이 숨 쉬는 것, 아직 육할 수 있는 기력,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인생의 마무리도 즐겁지 않을까요?”

상처받고 아팠던 그였기에 울컥해지며 공감 가는 걸까? 동생 준서가 태어날 때, 전치태만인 아내는 5시간 넘는 수술과 42팩 수혈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아내를 안고 여기를 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유난히 눈을 좋아했던 아들 석규가 하늘에서 동생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뻐하니 어느새 행복으로 바뀌고 있었다.

‘힘든 일, 많았지요.’ 라는 배우 이광기 씨는 믿음이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이라고 서슴지 않는다. 믿음과 헌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음을 고백한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고, 여행은 돌아옴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끝인가 싶으면 또 다른 시작이고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볼 힘을 얻고 돌아오니 말이다. 요즘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은 그는 촬영이 끝나면 다큐제작도 생각하고 있다고 슬며시 귀띔한다.



DIY에 빠지는 이유

내 손에서 탄생, 희열, 그리고 재미!

탤런트 천호진 씨는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가구 만드는 목수 생활을 즐긴다. 그는 가구를 만들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치과 의사 신소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로 'DIY 명화그리기' 강좌를 수강하며 명화 그리기에 푹 빠진지 1년을 넘어섰다.

'DIY(Do It Yourself)!' 이유와 목적, 결과도 다르지만 식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영역 파괴와 식지 않는 열풍, 그것은 손끝에서 완성되는 이유 있는 '실속 재미' 때문이다.

글_ 편집부 사진_DIY가구 만드는 세상(평택점) 제공

DIY?

DIY는 스스로 생활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수리하는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던 영국에서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취미와 여가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미 시중에 나온 물건이라면 사서 쓰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 등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Y를 고집하는 데는 '덕분에' 삶의 활력을 얻고 취미로 했다가 꿈도 찾고 생업이 되기도 하는 의외의 매력 때문일까?

'개성만점' DIY 열풍

DIY 열풍' 이 불면서 곳곳에는 가방공방, 금속공방, 화장품공방, 향수공방 등이 생겼다. 식음료, 자동차, 뜨개질 등 DIY 영역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역시 원조는 가구공방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세를 더했다. 지금도 DIY 열풍



의 중심은 가구공방인데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고 자투리 공간에 딱 맞게 맞춤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DIY 붐은 '셀프 인테리어'로부터 시작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래된 집을 스스로 인테리어 해 갈끔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신혼 부부들도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셀프 인테리어는 도배나 전등 교체 등 단순한 보수 작업을 넘어 욕실부터 주방까지 전문가 수준의 시공까지 확대되고 있다. DIY 바닥재, 타일 시트 등이 선보였다. 타일형태 스티커제품으로 원하는 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종이, 인조가죽, 레이온, 코르크 등 독특한 표면소재와 패턴들로 연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마트도 풀 없이 물로 붙일 수 있는 '내 맘대로 조각벽지' 를 출시했다.

외식·식품 분야에서의 DIY 열풍도 대단하다. 특히 빵, 요거트, 와플 등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팝콘제조기, 솜사탕기계, 요거르트·청국장 제조기, 홈베이킹 DIY 제품 등이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어른들의 색칠놀이 - 'DIY 나만의 명화 그리기'

불황이라는 출판계에서도 요즘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책, 바로 어른들을 위한 색칠공부 '비밀의 정원' 이 인기이다.

비빔 일상에서 좋아하는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내가 색칠하며 완성되는 명화를 감상하는 일은 색다른 즐거움까지도 선사한다.

명화 컬러링북은 단순한 색칠만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잠시 기쁘게 '몰입'에 빠질 수 있는 힐링 DIY이다.

자가 양조 - 크래프트 비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소규모 양조장이 소량 생산하는 수제 로컬 맥주) 열풍이 뜨겁다. 하우스 맥주 전문점들은 자기 손으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마시려는 고객들을 위해 맥주 원료인 맥아, 홉, 효모를 갖고 오면 블루마스터가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4~5시간에 걸쳐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맥주도 내 취향에 맞게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다.

향수 공방 - '데메테르 퍼퓸 스튜디오'

초보자도 퍼퓸 디자이너와 함께 향수를 만들어볼 수 있다. 먼저 향수를 쓰는 목적과 자신의 평소 스타일, 좋아하는 컬러, 장소, 즐겨 쓰는 향수 등을 '향기 브리프' 에 적는다. 이후 퍼퓸 디자이너와 상의해가며 다양한 향료를 조합해 원하는 향을 만든다.

이외에도 모 커피브랜드의 엄청나게 달고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가격도 한 끼 식사비라 이름 붙여진 '악마의 음료'는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샷과 시럽, 토핑 등을 독특하게 조합해 메뉴판에서 볼 수 없는 숨겨진 메뉴로 SNS를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가 하면 불경기가 계속 되면서 자동차의 배터리 교체나 에어컨 필터, 오일 필터 등을 직접 구입해서 정비하는 '스스로 정비족' 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힐링되는 나만의 DIY, 재미있는 노동으로

'삼시세끼'의 차승원 씨가 똑딱 해내는 요리 솜씨로 '차줍마'라고 불리며 인기몰이를 하지만 배우 '유해진의 DIY'가 없었으면 그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

유해진's DIY는 '냄비 걸이'를 시작으로 차승원의 '쭈그리 의자', '빵틀 받침대'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차승원의 요리만큼이나 유해진의 DIY는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은, 생활을 운택하게 해주는 열쇠였다. 실속 DIY의 진수를 보여준 유해진의 지혜와 배려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때론 천천히 무언가를 완성하는 기쁨으로, 과시하기 위한 화려함이 아닌 과정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힐링되는 나만의 DIY, 재미있는 노동으로 즐거워져야 한다.



지속적 교육과 실천을 통한 인하대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글_ 김미경 / 의료정보팀

Change
the IN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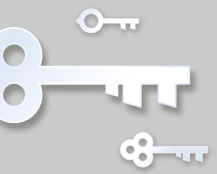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인식도 설문조사 (2014. 8. 5)



개인정보보호 퀴즈 대회 (2014. 10. 10)



개인정보지킴이 발대식 (14. 7. 29)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된다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보이스 피싱/나를 사칭한 메신저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하대병원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매년 2~4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정책 및 국내외 동향, 사례를 알리고 이를 통해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자게시판 내에 개인정보보호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환자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개인정보 관리 방법,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스터, 개인정보 파일 저장 시 암호화 방법, 비밀번호 작성규칙(최소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만화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현황 및 고시/권고, 안내서/해설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동되게 하고, 자료실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후 푸짐한 상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Boom-Up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 직원이 흥미를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4년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식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후 그 결과는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 인식도 및 실천율이 낮은 항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동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동으로는 인사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연 2회 교육 외, 의료정보팀에서 월 1회 신입 직원 및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요점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순회 출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안전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으며 29개 부서 29명의 안전 지킴이들이 돌아가며 격월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부서를 현장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 수렴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①개인정보 포함 출력물/USB(CD) 관리 실태 ②개인정보 파일 비밀번호 설정 확인 ③환자 정보 누출 상태 점검 ④ID/PW 관리 실태 ⑤접근통제 구역 출입 및 개인정보 보관 창고 관리 실태 ⑥이전 캠페인 활동 시 개인정보 미준수로 지적받은 부서 재방문 등이다.

점검 시에는 휴지통에 개인정보 포함 이면지가 버려지지 않았는지,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개인정보 파일에 비밀번호·PC 스크린 세이버를 설치했는지, 자리를 떠날 때와 사용 완료 후 ID/PW를 log out 하는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이렇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기 원내 활동들을 통해 인하대병원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것 처럼, 인하대병원은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함께 지켜요^^ 개인정보보호!!

- 환자 개인정보 포함한 출력물/USB(CD) 관리
 - 이면지 사용금지
 - 개인정보 포함한 출력물은 파쇄기류 수거함에 수집 또는 인적사항 식별 불가능하게 폐기
 - USB(CD)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기
- 개인정보 파일 관리
 - 컴퓨터 내 개인정보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또는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하도록 마스크(*) 표시 (예시: 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USB(CD) 개인정보 파일은 잠금장치 되어 있는 서랍 또는 문서 보관장에 보관
- ID/PW 관리
 - 타인공개 및 유출 주의
 - 자리 떠날 때와 사용 완료 후 Log out
- 환자 정보 누출 금지
 - 개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환자 진료내용, 영상 사진 업로드 금지
 -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정보 대화 금지
- 개인정보 위배 신고할 운영
 - 지하 2층 의료정보팀 출입구 앞

환자정보 유출 및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인생 제3막, 죽음의 문턱에서

내 인생 1막은 탄생, 2막은 결혼, 3막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한다. 나의 병은 내가 내 목숨을 가버리 여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은 되는 듯 함부로 소진한 데 대한 하늘의 일격이 아닐까 싶다.



출산 후 6개월 무렵, 젖은 나오지 않고 여전히 멍쳐있다

서른여섯에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을 심심할 때 하는 소꿉놀이쯤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조차 두려움이 없었다. 언제 죽어도 미련 없고, 후회 없이 산다는 자세로 콧꽃하게 살았다. 그리고 결혼 후 첫애를 갖고 육아와 직장 일로 정신없이 3년을 보내고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무렵 나는 내 아이를 보며 조금씩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저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어야 할텐데…….'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첫애에 비하여 젖의 양이 줄어도 '둘째라서 그런가보지', '나이가 많아 그런가?', 가슴에 덩어리가 만져져도 '젖이 멍쳤나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출산 후 6개월이 될 무렵 젖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둘째는 이미 분유에 적응을 했는데 가슴은 여전히 멍쳐있었다. 인근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등을 했다. 그곳 병원 의사 선생님은 암일 것 같다며 큰 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 병원에 큰 관심 없이 살던 나는 어느 병원이 인지도가 높고 믿음만한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나의 판단은 단순했다. 어린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병원은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 병의 치료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 일주일일 얼마나

길었던가? 처음엔 설마 하며 다소 느긋하던 마음이 결과가 나올 즈음엔 밤잠을 설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는 '암(癌)'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 나라에 암 환자에 대해 증증환자 적용을 해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했다. 아주 현실적인 말이었다. 나는 멍해지는 정신을 추스리며 '이제 어떡하지?' 하는 물음만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의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증증환자 등록을 하고 나는 다른 곳에 암이 전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암' 이란 드라마에서나 쓰이는 병이었는데.....

집으로 오는 차를 타고 나는 낮이 나간 듯 멍한 상태로 있었다. 나에게 암이란 시시결령한 삼류 드라마에서 작가가 소재 부족으로 허덕일 때나 쓰는 병이었지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누가 암이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무심히 흘려 들었고, 암이라는 말에 당장 죽을 듯이 흐느껴 울거나 히스테리를 부리는 드라마를 보아도 '정말 저러까?' 하며 시니컬하게 바라보던 내가 암에 걸린 것이다.

병원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날 나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4살 된 아들과 6개월 된 딸을 생각하며 울었다. 다른 누구보다 내 어린아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병에 걸릴 줄 알았으면 둘째는 낳



지 말걸……. 하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며 울고울고 또 울었다. 나의 눈물은 한 달간 지속되었고, 밤잠은 6개월을 도망가 버렸다.

다행히 전이 되지 않았다. 기뻐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그렇게 눈물의 나날을 보내다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다. 기뻐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암 환자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 절제를 원했다. 암을 말끔히 제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의사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항암치료를 먼저하고 수술 해야 한다고 했다. 항암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겠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나는 의사 선생님이 짜 주는 치료계획을 두 말없이 따랐다. 바른 판단이란 걸 하지 못할 것이 뻔한 상태의 나는 나를 믿기보다 의사 선생님을 믿는 편을 택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했다.

곧 나는 항암치료에 들어갔고, 4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항암치료를 위한 약물이 몸에 퍼지면 약 2주 뒤에는 어김없이 입원해야 했다. 이 때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고열에 시달리곤 한다. 3번째 항암치료로 입원했을 무렵은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었다. 병원에서는 일본의 모 자동차 회사가 후원하는 자선 콘서트가 있었다. 전국 주요 병원을 순회하며 가수 김현철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로하며 노래를 불렀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무리한 나는 1층 로비로 갔다. 영양제, 항생제, 수액을 주렁주렁 달고.

그의 노래는 어둡지 않았다. 밝고 가벼웠다. 그러나 나는 그가 처음 노래를 부를 때부터 마지막 노래를 마칠 때까지 울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노래가 너무도 감동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4번의 항암치료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약 한 달 뒤 병원에서 하는 유방암 관련 교육을 들으러 갔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업하는 조영업이라 소개했다. 피식~ 실소(失笑)가 났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아침부터 영업하느라 여념이 없는 분을 만나 폐업을 준비하게 된 셈이다.

치료가 마무리되자 '불면증' 이 문제

수술 후 다시 33회기량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종양학과는 지하 1층. 나는 무림에서 싸우다 상처 입은 무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동굴에서 치료받는 상상을 하곤 했다. 매일 매일 받아야 하는 방사선 치료는 아픈 것 보다 벗어날 수 없이 반복되는 치료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땐 mp3에 음악을 담아 들으며 위안을 받았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전엔 누가 불면증이라면 많은 시간 깨어있으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심지어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겪는 불면증은 깨어있는 시간도 거의 비몽사몽이고 제대로 된 사고와 판단을 어렵게 했다. 더구나 잠을 잘 못 자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도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제서야 나는 자식과 많은 돈을 두고도 자살했던 모 연예인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희번덕이며 깨어있는 나의 정신과 지나치게 늘어난 용수철 같은 신경을 위해 오랜 휴식에 들어갔다. 내 삶의 내공으로 정신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지만, 신경은 정신의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 인생 3막은 주어진 여분의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수술한 지 벌써 2년째 접어든다. 난 아직 호르몬 치료를 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들르고 팔의 부종으로 간간히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직장에 복귀하여 워킹맘으로 육아, 가사, 직장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후 생업을 접고 시골에 들어가 채소만 먹고 산다고 한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식이도 중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는가?' 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 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 인생의 3막이 시작되었다. 이 3막은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의외로 길 수도 있다. 내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이다. 한순간 사고가 아닌 암에 걸려 죽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내게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인생 3막을 만들어준 인하대병원과 아침부터 영업하느라 여념이 없는 의사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비록 처음 병원을 선택할 땐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선택했지만 내 선택의 결과는 훌륭했다. 가슴 일부를 절제하고 한쪽 팔이 바보가 되었지만 가슴이 남아 있고, 멀쩡해보이는 팔이 있으므로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다.

한때 나는 맨손으로 범도 때려잡을 기세로 살았지만, 지금은 겨우 파리 정도 잡으며 산다. 하지만 호랑이보다 파리가 현실적으로 훨씬 유용하다며 위로해 본다.



인하대병원 나눔학교(Sharing School) & 직업체험 교실

최근 교육정책 중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체험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학교 스포츠 활동, 주말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어 왔다.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일터를 열어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는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교육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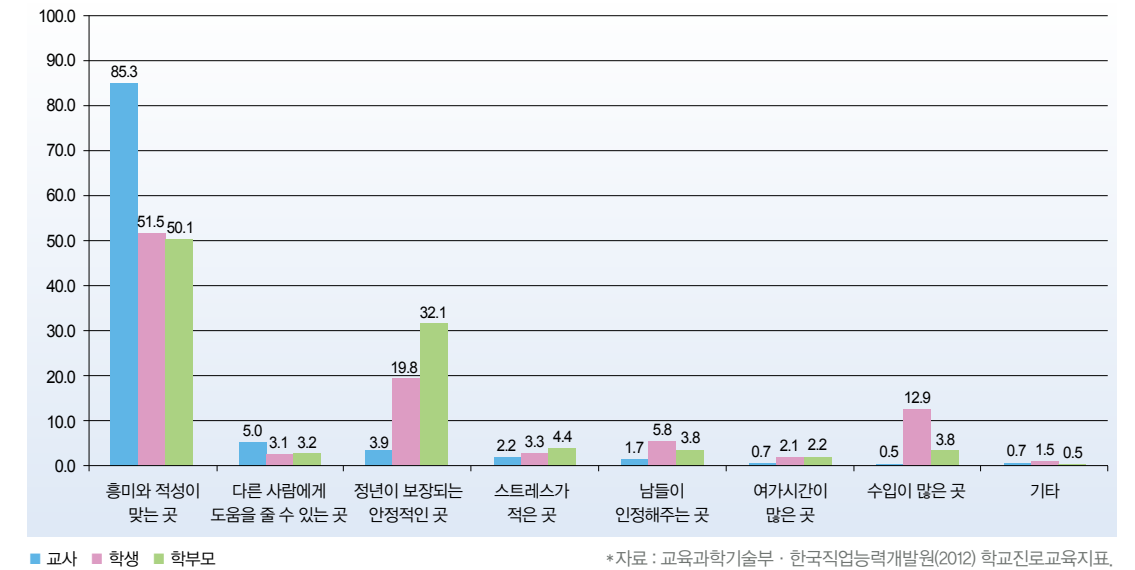
글_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직업체험은 대강의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직업 세계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고 해당 직업 종사자 옆에서 생생하게 직·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게 되면 꿈을 찾아가기 위해 현실에 직면한 학업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막연함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꿈을 찾아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Sharing & Experience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직업선택 기준]



표에서 보듯이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일터를 열어주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적어도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발적 그룹이 생겨나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정보제공과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직업체험이 청소년기 진로 탐색에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 활동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려 한다.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직업체험 환경을 제공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직업체험 교육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나눔학교(Sharing School)**
연 2회 방학 중 시행하며 직업체험, BLS교육, 나눔활동 등 청소년들이 나눔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지
- **인하대병원 직업체험 교실**
인천시 평생교육관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기부사업으로 월 1회 개설하며 연중 운영
- **제2차 인하대병원 나눔학교(Sharing School) 성료**
2015. 2. 9. ~ 2. 13.



생리통
핫팩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이 효과적!



Q 생리통은 왜 생기나요?

생리통은 왜 생기나요?

생리통은 자궁내막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란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프로스타글란딘은 생리 중에 자궁의 수축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생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리통은 나이가 젊을수록(30세 미만), 초경이 빨리 시작될수록(12세 미만), 생리주기와 생리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의 여성이 생리통을 경험하며 나이가 들면서 혹은 출산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Q 어떤 진통제가 효과적인가요?

어떤 진통제가 효과적인가요?

생리통에 더 효과적인 진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1차적으로 선택하여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 성분으로는 Ibuprofen, Naproxen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생리가 시작되었고 생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어 2~3일간 지속된다면 진통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분명	용량	1일 최대 용량	주의사항
Ibuprofen	1회 400~600mg, 4~6시간 마다 또는 1회 800mg, 8시간 마다 복용	2400mg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
Naproxen	1회 275mg, 6~8 시간 마다 복용	1375mg	*위궤양 또는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진통제는 통증 또는 생리 시작과 함께 복용을 시작하고, 2~3일 동안 지속합니다. 생리 3주기(약 3개월) 동안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의사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처방 가능한 진통제가 있으며, 생리통 완화와 피임 효과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는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피임제의 경우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방해하여 생리통을 감소시키는데 피임약의 경우 배란저해 작용까지 있어서 90%의 환자에서 생리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estrogen의 양을 최소화한 제품들은 처방합니다.

Q 약 이외에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약 이외에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따뜻한 물에 목욕하거나 핫팩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핫팩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규칙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저지방식이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
지원받으면 쉬워집니다

2015. 2. 25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금연치료 진료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2.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번까지 지원)

3. 지원내용

- ①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 진료 및 상담료의 70%
- ②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



All New 인하대병원 이룬다

꿈의 신관 개소, 쾌적한 외래환경에 여성전문센터 및 척추센터 등 구축



2015년 3월 16일(월),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신관증축공사를 마무리 하며 '신관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공사는, 이날 2층 및 3층 외래진료가 시작하며 성공적인 개소를 알렸다. 이번 증축은 공사기간 중 교직원들이 내원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 및 진료안내에 직접 참여하여,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룬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

신관은 2층과 3층으로 구분되며, 2층은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뇌신경센터, 3층은 여성전문센터, 척추센터, 통증센터 등이 위치하여,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편안한 진료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로 구성되고,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를 구축, 교수급 전문의가 원내 상주하며 지역사회 끝판타임을 책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질환의 통합진료를 위해 여성전문센터(유방·갑상선외과센터, 산부인과)를 개소했고, 척추센터와 통증센터 등은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중증질환을 책임지게 된다.

김영모 병원장은 "신관증축 개소는 단순히 공간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인하대병원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모 의료원장, 라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어깨에 느껴지는 쌀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지만,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무게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2015년 3월 31일(화), 인하대병원 임원실에서 김영모 병원장이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지난 3월 12일,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된 김영모 병원장은 임직원들의 응원속에 쌀 60kg을 들어 올리며 소외계층에 쌀을 기부했다.

라이스버킷 챌린지는 전국 쪽방촌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무거운 쌀을 들어 올려 어렵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많은 사람이 쪽방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연구역량 나눔을 통한 신기술 창출]



2015년 3월 13일(금), 충청북도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연구 활성화, 첨단의료기술 정보

공유, 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교류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역 임상시험센터,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국가지정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 평가 센터 사업을 유치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이며, 여러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연구협력 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선도연구센터사업(MRC)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료인 대상 일요일 검진 실시

[지역 의료인 건강이 건강한 지역사회 원동력]

2015년 3월 15일(일),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대형재난사고에 준비된 환자안전병원'

대형재난 대응체계의 중심에 서다!!



인하대병원은 매년 대형재난상황 대비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환자안전기준(JCI)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한 바 있다.



여객기 갯벌 불시착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참여, 대형재난사고 합동훈련을 통한 응급의료 역량 구축

2015년 3월 27일(금), 영종도 거잠포 선착장 갯벌에서 대규모 재난대비 인명 구조 역량 향상을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주관하는 여객기 갯벌 불시착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진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다. 민·관·군 14개 기관 관계자 270명이 참석하고 헬기를 포함한 총 25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훈련에 의사, 간호사 등 운용인력을 파견, 65명의 모의 사상자를 부상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치료하면서 대형재난 사고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응급의료 프로세스 구축방안을 검토했다.

인천지역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심포지엄 성료

2015년 3월 17일(화), 병원 3층 강당에서 '인천지역 대형재난사고 대비 재난 의료 안전망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지역 재난 응급의료 대응 및 재난 의료 체계 확립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자체, 보건복지부, 소방안전본부 등의 재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형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국제공항, 항구 등 재난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며 인천지역 재난 응급 및 재난 의료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검진은 지역 개인 병·의원·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및 약사와 이들의 배우자 37명을 대상으로, 평일에 받기 어려운 수면내시경, PET-CT, MRI 등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검사 등 종합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검진은 인하대병원 교수진이 모든 검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검사 후 확인 가능한 결과는 당일 상담까지 하는 등, 평소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지역 의료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일요일 검진은 지역사회 의료

인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하대병원은 '지역 의료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용각 초대 의료원장,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올라



이용각 인하중양의료원 초대 의료원장이 지난 24일 개최된 '2015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대한의학회는 국내 의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의학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학술단체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아 명예의 전당을 설립했

다. 올해 혈관외과학과 기관 이식 분야를 개척, 외과학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로 인하중양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이용각 교수 등 5명이 헌정됐다.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흉부중양학회지 감사장 수상



2015년 3월 5일(목),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폐암센터장)가 폐암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흉부중양학회지(Journal of Thoracic Oncology)(impact factor = 5.8)의 편집장으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류정선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500여 명에 달하는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3번째로 많은 수의 논문을 심사하였고, 세심하고 통찰력 있는 공정한 심사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인하대병원 소식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칭의

2015. 3. 2



출연: 혈액종양내과 이현규 교수
프로그램: 채널A TV 주치의 닥터지바고
내용: 흡연과 폐암

2015.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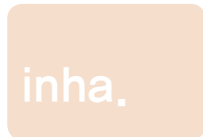
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KBS 2TV 저녁 생생정보
내용: 대상포진의 원인과 치료법

2015. 3. 3



출연: 신경과 박희권 교수
프로그램: KBS 2TV 저녁 생생정보
내용: 대상포진과 뇌수막염의 관련성

2015.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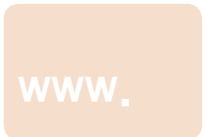
출연: 안과 정지원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주출매거진
내용: 환절기 안과질환 치료법

2015. 3. 9 ~ 2015. 3. 15



출연: 이비인후과 김연효 교수
프로그램: SBS 라디오 1분 건강칼럼
내용: 7가지 이비인후과질환 관련 의학상식

2015. 3. 10



출연: 호흡기내과 조재화 교수
프로그램: 교통방송 2시뉴스
내용: 미세먼지, 황사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

2015. 3. 11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와 혈관질환

2015.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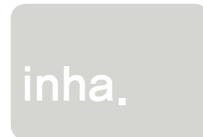
출연: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프로그램: KBS 아침뉴스타임, 뉴스12
내용: 삼차신경통

2015. 3. 23



출연: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주출매거진
내용: 안면경련증

2015. 4. 6



출연: 정형외과 김명구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주출매거진
내용: 봄철 산행 무릎통증

2015. 4. 10



출연: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교수
프로그램: SBS 해피투데이
내용: 알레르기 주의보

2015. 4. 20 ~ 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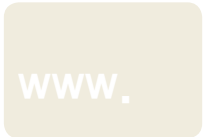
출연: 감염내과 백지현 교수
프로그램: SBS 라디오 1분 건강칼럼
내용: 7가지 피부질환 관련 의학상식

2015. 2. 8



출연: 예방관리센터 이원경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9, 뉴스광장
내용: 기온 1도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2%씩 폭증

2015. 2. 23



출연: 정형외과 이동주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주출매거진
내용: 손목터널증후군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5월 13일(수), 6월 11일(목) 7월 8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1 세미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3638
암환자 음악 요법	암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진료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건강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5. 06. 18 오후 3시	여성질환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	신세계 아카데미

●문의: 공공의료사업지원단 ☎ 032-890-2874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공연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5. 4. 3 ~ 4. 24	대지의 旋律(선율)	김기현	2층 갤러리
2015. 5. 1 ~ 5. 22	2015 인천물그림회 기획 전시	물그림회	
2015. 5. 29 ~ 6. 19	작은 소망을 담아내다	그림여행	

●문의: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 인하대병원 지하 주차장이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2015년 4월 13일부터).

파랑새 소식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지난 행사



2015년 2월 12일 유방암 공개 강좌 및 제9회 파랑새 정기총회

- 유방암 공개 강좌: 유전성 유방암의 치료-김세중 교수/유방암의 유전체검사-조영업 교수
- 파랑새 정기 총회: 2015년 회장 및 임원 선출-백영희 회장 선출



2014년 12월 11일 유방암 환우 송년 모임

100 여분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 공개강좌 및 제 9회 파랑새 총회를 가졌다.

최근 서양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 이모가 난소암과 유방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도 BRCA1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 유 방암과 난소암에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7~8배 높은 것을 알

고 예방적 유방절제술,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에 관심이 많아진 유전성 유방암 검사 및 치료에 대해 교육을 듣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수술보다 더 무서운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항호르몬 치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유전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힘들었던 항암 치료를 떠올리며 의료가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 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 제9회 파랑새 총회에서는 작년에 부회장을 맡았던 백영희 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방암 환우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올 한해 파랑새를 기쁜 마음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다음 행사

- 4월 23일: 월미공원 5월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날짜 및 장소는 미정으로 추후공지예정 공지 예정입니다.

* 교육 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le.daum.net / inhabluebird

2015년, 더 힘찬 심장박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환자중심 중증질환센터 증축



|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건복지부 선정, 2012년)



| 척추·통증센터



| 혈관센터



| 여성질환센터



인하대병원

진료예약 1600-8114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inha.com>



보건복지부
재인증획득



국제의료기관
재인증획득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착한브랜드



포브스
사회공헌대상